

건설분야 위법·비리행태 여전

정부가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 척결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지만 건설 분야에서의 비위·비리 행태는 여전히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단장 오군국무조정실 국무차장)은 건설 계약 분야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면허 미소지 업체와의 용역계약 체결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204명을 적발, 이들 중 18명(지자체 공무원 6명 포함)을 수사의뢰하고 공무원 19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난 5년(2010~2015년)간 전국 16개 시·도 등 지자체가 발주한 건설 공사 중 특히 공법이나 신기술 공법이 적용된 1만1,539건을 전수 조사했는데, 그 결과 ▲사전 검토 누락 등 공법 선정 절차 미준수 1,195건 ▲특허·신기술 보유자와의 사용 협약 미체결 288건 등 1,483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율 12.9%에 달한다.

연약 지반인데도 단단한 지반으로 허위계산 등 정부, 공사현장 실태점검 공무원 192명 징계 요구

조사 결과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적발 사례가 고르게 나타났고, 특히 공법이나 신기술 유형이 다양한 도로·교량·상하수도 분야에서 주로 적발됐다. 이 중 공법 적용 및 계약 과정에서 공법이 오고간 정황이 있거나 실제 부실 설계·시공으로 이어진 사례에 해당하는 18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귀책사유가 큰 공무원 27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실제 경북 A시의 한 실내체육관 신축 공사(73억원 규모) 과정에서 지붕 공사에 적용된 특허 공법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특정 업체가 선정됐고 특허 보유자와 사용 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체육관이 들어설 땅이 연약한 지반인데도 단단한 지반으로 허위

계산했고, 지붕 위 눈의 하중에 대한 계산 결과가 누락됐으며, 공사 과정에서 접합부 볼트도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고 한다. 제2의 마우나리조트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셈이다.

정부는 또한 전국 공사 현장에서 불량 철강재를 사용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된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벌여 KS 규격 미달 중국산 철강재 사용 및 품질성적서 변조 등 위법 행위 28건을 적발, 적발된 15개 업체를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

이울러 전국 소방시설공사 상주감리 대상 33개소를 표본 조사해 감리일지 허위 작성, 감리업무 소홀, 감리원 배치 기준 위반 등 위법 행위 7건도 적발했다.

특히 KS 규격 미달 중국산 철강재

(H형강)를 납품한 사례가 전체 28건 중 1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상당수 업체들이 KS 인증을 받지 않고 품질시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중국산 H형강을 신축 공사 현장에 납품하거나 사용한 것이다.

실제로 수입산 철강재 수입은 2013년 1,939만톤에서 지난해 2,206톤으로 1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산 H형강의 내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29%에 이른다. 이는 중국산 철강재 가격이 국산의 80%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건설 자재 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가 관리하는 품질시험 전산관리시스템에 시험 단계별 입력을 의무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품질시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영입정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용주 기자

남성 육아휴직자 급증... 도내 작년 88명

경기불황과 여권 신장 등 세대 변화에 남성들의 육아휴직 신청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육아휴직 남성 근로자가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호남권역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 2010년 60명에서 2011년 83명, 2012년 113명, 2013년 144명, 2014년 202명, 지난해는 302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북지역에서도 지난해 88명의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육아휴직 비율도 5.2%로 2010년 2%에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같은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는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업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확대가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용주 기자

전주 진북동 도토리골, 벽화마을로 새단장

시 - KT&G - 35사단 등 참여

원도심 마을인 전주시 진북동 도토리골이 교통 지반마을과 같은 벽화마을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오는 30일 KT&G전북본부 상상발전터뷰 봉사단, 육군 35사단 전주대대 장병, 대학생 자원봉사자, 지

역주민 등 250여명이 참여하는 담당 벽화 사업을 전개한다.

벽화마을 사업은 도심 내 낙후된 지역에 아름다운 담장벽화를 조성, 범죄 예방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기관들은 노후화되고 낙서로 얼룩진 담장을 격조 있고 수준 높은 예술작품으로 변화시킬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농가 반지하 창고서 도박판

완주경찰서는 28일 농촌마을 주택 반지하 창고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로 이모(58·여)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7일 저녁 8시에 완주군 소양면 한 주택 반지하 창고에서 판돈 100만원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화투패 6장을 반으로 나누 뒤 높은 숫자가 나오는 쪽이 승리하는 속칭 '야도사기'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수검된 도박판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잠복수사 끝에 도박 전과가 있는 이씨 등을 검거했다.

/인진수 기자

교회만 골라 턴 20대 덜미

교회 사무실만 골라 카메라와 노트북 등을 훔쳐 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8일 교회 사무실에서 카메라와 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8월 5일 밤 11시에 전주시 인후동 한 교회 사무실에 침입해 시가 100만원 상당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지난해 8월 25일까지 전주시내 교회에 침입해 모두 8회에 걸쳐 노트북 등 교회 물품(총 490만원 상당)을 훔쳐 전당포에 팔아 넣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용주 기자



산재사망 희생자를 기리며

총 조합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4·28 산재사망 추모 건강한 노동, 안전한 사회 민주노동 투쟁 결의대회'를 마친 민주노

30대 성범죄자 전자발찌 끊고 도주... 경찰 추적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성범죄자가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유혹해 성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28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

난 27일 저녁 9시에 전주시 중화산동 한 원룸에서 권모(31)씨가 A(31·여)씨를 유혹해 성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자발찌를 떼고 달아난 권씨의 뒤를 쫓고 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권씨는 지난 1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씨를 성추행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전자발찌의 GPS 감응기(위치추적장치)를 떼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자발찌를 떼고 달아난 권씨의 뒤를 쫓고 있다.

/인진수 기자

전주 용머리고개 교통사고 위험

육교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 신호 위반 시내버스 많아

전주시 완산동 용머리고개 육교 철거된 후 새롭게 설치된 횡단보도가 버스승강장 바로 옆에 위치해 많은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을 호소하고 있다.

전주시 구도심과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에 자리한 용머리고개 육교는 시설 노후와 이용객 감소로 설치된 지 26년 만에 지난해 24일 철거한 후 육교가 있던 자리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됐다.

하지만 육교철거 과정에서 교통안전 대책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없이 오르막길이 끝나는 버스승강장 바로 옆에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해 교통사고 위험이 되려 높아졌다.

특히 신호 위반 버스가 2대 이상 이어질 경우 덩치 큰 시내버스가 횡단보도 한 가운데 정차할 때도 많아 지역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용머리고개 인근 지역 주민들 중 고령층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에 취약한 데다 육교 철거로 새롭게 설치된 횡단보도마저 제 기능을 못해 애꿎은 지역 주민들만 교통사고 위험에 떨고있는 현실이다.

지역주민 박상훈(28)씨는 "주민들을

위해 육교를 철거하고 신호등을 설치한 건 좋지만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이 가깝게 붙어있어 신호를 무시하고 내달리는 차량이 아찔할 때가 많다"며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인데도 유독 덩치 큰 버스가 아무렇지 않게 신호 위반을 하는 게 더 큰 문제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의 경우 운전자가 멀리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며 "용머리고개 신호등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 급커브 오르막 구간이라 이를 뒤늦게 발견한 운전자가 단속을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크다"고 설명했다.

용머리고개 육교 철거를 담당했던 전주시 도로화학과는 "육교 철거가 주민 목적이고 논의 과정에서 버스정류장과 관련해 문제가 예견돼 주무부서에 통보했지만, 버스승강장 이전이 쉽지 않다는 대답을 받고 공사를 지연시킬 수 없어 우선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해당 정류장은 횡단보도와 가까워 사고 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많아 횡단보도와 거리를 두고 버스정류장을 이동해 설치할 계획이지만 인근 주민들의 의견 취합이 끝나지 않아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진수 기자

함께 뛰자! 군산에서, 함께 열자! 전북 미래.

2016 GUNSAN
2016 Jeollabukdo Sports Festival

2016. 4. 29 (금) ~ 5. 1 (일) / 3일간
군산시 월명종합경기장 외 종목별 경기장

주최: 전라북도체육회 주관: 군산시, 군산시체육회

2016 Jeollabukdo Sports Festival

2016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축·하·공·연

KBS 전주 김태은의 가요뱅크

2016. 4. 29 (금) 저녁 6시
군산 월명종합경기장 특설무대

비투비, 레인보우, 박현빈, 노사연, 나비, 불송, 레드키즈, 김정연, 김영현